

우리나라 대중교통 수단별 수송실적의 과거와 현재

고두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·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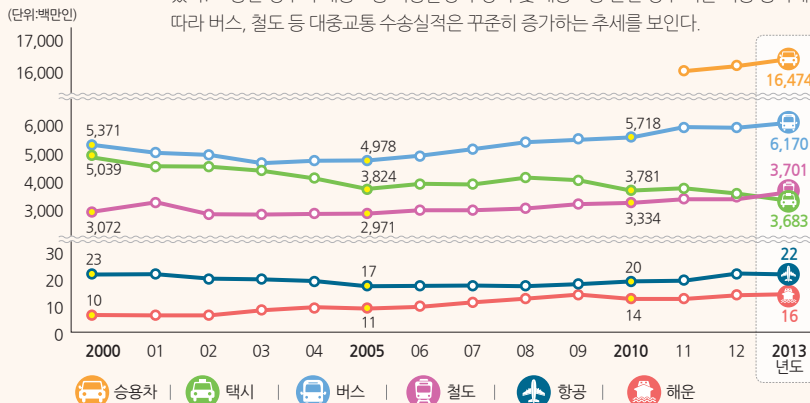


2014년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, 버스, 철도 등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며, 2004년 대비 2013년 여객수단별 수송실적 증가율은 버스(25.8%), 철도(25.3%), 항공(18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 특히 일반철도 중에서 KTX 분담률은 2005년 28.1%에서 2단계 개통 이후 2013년 41.3%로 많이 증가하였다. 이번 재미있는 통계이야기에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철도와 버스를 수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송실적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.

자료 1 : 2014 국가교통통계, 한국교통연구원 | 자료 2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월 30일자

대한민국 여객 수송실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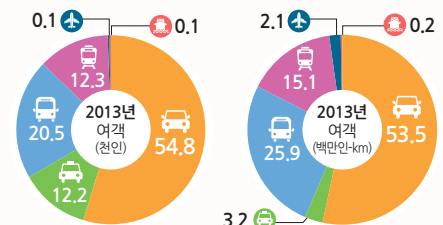
국내 여객 수송량 모든 교통수단이 전년대비 여객수송량이 증가하였지만, 택시부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동안 정부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 및 대중교통 관련 정부 지출 비중 증가에 따라 버스,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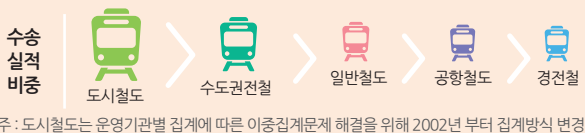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년도, 국토교통부
주 1: 철도는 경전철, 공항철도 제외 | 주 2: 버스는 마을버스 제외

대중교통 (버스, 철도)	2011년 38.7%	2012년 40.6%	2013년 41.0%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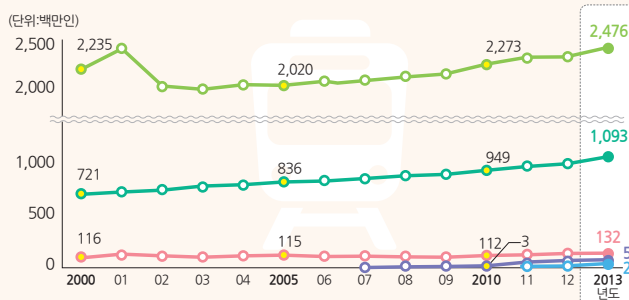
2013년 국내 교통 수단별 분담률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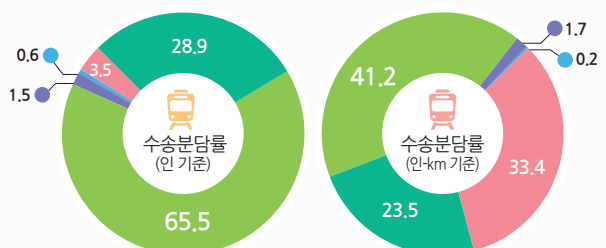
철도 수송실적



철도 수송실적 추이



2013년 국내 철도 수단별 분담률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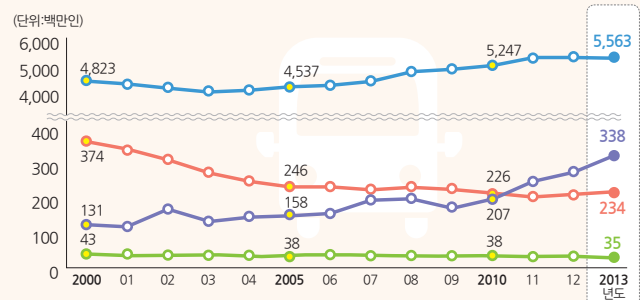


장거리 수송 (일반철도) 수송인원 기준 3.5% 수송거리 기준 33.4%
단거리 수송 (도시철도) 수송인원 기준 65.5% 수송거리 기준 41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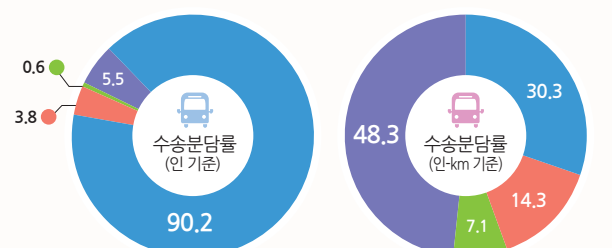
버스 수송실적



버스 수송실적 추이



2013년 국내 버스 수단별 분담률 (%)



장거리 수송 (전세버스) 수송인원 기준 5.5% 수송거리 기준 48.3%
단거리 수송 (시내버스) 수송인원 기준 90.2% 수송거리 기준 30.3%